



**진안군, 한의약 총명환 백색 기공체조교실 수료식**

진안군은 지난 2일 상반기 한의약 총명환 백색 기공체조교실(이하 기공체조교실) 수료식을 가졌다. 기공체조교실은 관내 주민들의 근력 강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40세 이상 지역 주민 15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5회에 걸쳐 운영했다. 기공체조는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들도 큰 무리없이 할 수 있고 다양한 자세로도 가능해 편한 자세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상반기 기공체조교실에 참여한 김모씨(78)는 “기공체조를 하며 주기적으로 체조를 하니 체력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긴다”고 말했다. 진안군보건소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감염을 예방하고 하반기 기공체조교실 또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 치매안심센터, 재활체조교실 대상자 모집**

김제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건강 더하기 재활 체조교실에 참여할 대상자를 3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건강 더하기 재활체조교실은 △ 기초검사(혈압, 당, 상·하지 기능검사, 우울척도평가) △ 명상체조(기체조, 명상 뇌호흡) △ 공예수업, 전통놀이 △ 웃음치료 및 치유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근력, 유연성, 일상생활 동작 능력 향상 등 재가 장애인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건강 더하기 재활체조교실 대상자는 거동이 가능한 김제시 지역 장애인이며, 총 2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군산 나운3동, '주당' 착한가게 57호점 탄생**

군산시 나운3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종쇠)는 3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행복을 동참하기 위해 정기후원을 약속한 주당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주당은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자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며 꾸준한 선정을 약속했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정수경 대표는 “물가상승,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기 속에도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부안 위도면서 재능기부 짜장면 나눔 봉사 진행**

부안군 위도면 치포마을에 거주하는 김정민씨가 지난 2일 무더위에 지쳐 있는 위도면 관내 기관 및 주민 120여명에게 직접 짜장면을 만들어 무료로 제공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다. 김정민씨는 21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식 기술을 활용하여 재능기부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는 위도면 4개 마을을 순회하며 짜장면 나눔 활동을 전개해왔다. /부안=김석진 기자

**인삼재배 신기술 도입 생산성 10% 향상**

**진안 인삼농가 강용희 씨, 터널식 해가림 이용 인삼 재배기술 도입  
이상기후 따른 병 피해 감소 · 생산성 향상 · 소득 증가**

생산성을 10% 향상시키는 터널식 해가림 이용 인삼 재배기술을 도입한 인삼농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전북인삼농협중앙회 두 번(12~13대)이나 역임하고 50년째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에서 인삼농사를 짓고 있는 강용희 씨(80). 강씨가 도입한 인삼재배기술이 이상기후에 따른 병 피해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신기술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강씨는 “목재 해가림 시설로 관행처럼 인삼농사를 짓다가 더 나은 재배법을 고민해 오다 가뭄과 고온 피해를 최소화하는 터널식 해가림 이용 인삼 재배기술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인삼 농가는 경사식 해가림 시설을 쓰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변화무쌍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새로운 시설이 필요해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에 인삼 뿌리는 쉽게 녹아버렸다. 기존 경사식 해가림 시설은 비가 거세게 내리면 빗물이 인삼에 직접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보통 지주목을 세운 다음 차광막을 씌운 인삼밭은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와 빗물 유입 등 병해충에 대응하기 어렵다. 인삼 비가림 하우스(비닐하우스)는 기존 목재 해가림 시설의 단점을 다스 해결하지만 이동경작하는 특성에 맞게 대체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터널 하우스형 인삼재배기술이다.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소형터널과 청·백색 차광자를 덮고 관수시설을 하는 방식으로 강씨는 처음에는 이같은 장점을 가진 재배기술을 선택 도입하기까지는 망설임이 있었다. 인삼의 특성상 서늘한 날씨를 좋아하는 만큼 지성 약용작물로 짧게는 2~3년 길게는 6년까지 무탈하게 키워야 수확이 가능한 인삼을 고온의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년째 이어지는 가뭄과 병해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보고 진안군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신기술 재배기술 사업에 참여했다. 터널 하우스형 해가림 시설은 아치형 프레임 위에 청·백색 차광자를 씌우고 지붕 높낮이를 다르게 해 중첩되도록 설치한다. 이는 별도의 통풍시설 없이 뜨거운 공기가 위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구조로 고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백색, 인죽은 청색인 차광지(청색필름)와 2중차광막(검정색)을 설치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이같은 시설을 할 경우 고온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경감으로 생산성이 10% 향상될 것으로 본다”며 “노동력과 병충해가 줄어 소득이 향상되고 6년 기준으로 관행 대비 10a당 소득이 약 649만 원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씨는 “아직까지는 이 재배법이 신기술로, 관광하는 농가가 많은 것 같다”며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기후변화에 대비해 도입하는 인삼농가가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산악연맹 회장 이·취임식 가져**

진안군 산악연맹은 지난 2일 김성수 전라북도산악연맹 회장, 전춘성 군수, 김민규 군의장, 전용태 도의원을 비롯해 군의원 사회단체장,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악초타운에서 제3·4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군 산악연맹 회장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3대 동창회 회장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진안군 의회 의원 당선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한 채 회장을 이임하고, 정재철 씨가 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한 제4대 정재철 회장은 취임사에서 “진안 산악연맹을 이끌어가는 부담이 크지만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며 “소통과 화합으로 도전하는 진안군 산악연맹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지난 임기 동안 진안군 산악연맹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동창회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정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진안군에는 널리



지랑하고픈 명산이 많으니 향후 진안군 산악연맹과 적극 협조해 전국의 많은 산악인들의 발길이 진안에 머물 수 있도록 산악관광 발전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고창소방서, 생명 살리는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홍보**

고창소방서(서장 라명순)는 고창군청과 협업하여 심폐소생술 홍보영상을 고창치안과 선운사 도립공원 등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송출 중이다. 심정지 발생 후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률은 97% 이상이지만 4분이 지나게 되면 5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심정지 발생 초기 4분의 대응이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시간이 된다. 따라서 이번 홍보 협업은 터미널, 선운사 도립공원 등 생활 밀착 장소의 전광판을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리고 고창군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이루어졌다. 라명순 소방서장은 “군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봉사내방**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정무부지사)



**무주 삼동회, 다문화가족 자녀돌봄 프로그램 진행**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장진원)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농번기 농가 및 맞벌이 가정 중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방학맞이 자녀돌봄 프로그램 ‘다같이 놀며 자라자’(이하 다놀자)가 진행된다. 다놀자 프로그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 21조에 따르면 직장가정의 인입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63조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을 위해 체험활동 등을 통한 사회성 발달 역량강화를 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획되었다.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총 5회기로 구성된 다놀자 프로그램은 덕유산국립공원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 홍보관과 연계하여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공군사관학교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지역문화유산 탐방 등 다양한 외부활동을 통해 체력증진 및 협동심?모험심?인내심 등의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센터 관계자는 “다놀자 프로그램을 통해 방학기간 자녀돌봄에 대한 부모의 부담감 경감과 양육공백 해소 및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무주군가족센터의 프로그램은 센터 홈페이지(<https://mujufamilynet.or.kr>)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며 화원가입 및 기타사항은 센터(063-322-1130)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기자



**군산시 흥남동, 노인일자리사업 간담회 개최**

군산시 흥남동은 지난 2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과 폭염대비 건강수칙 안내 등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재유행 차단과 본격적인 폭염 대비 안전사고 예방 및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무더위 속에서도 환경개선 활동에 노력해 온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한 어르신은 “노후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 감사하며, 깨끗한 흥남동을 만들기 위해 보탬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진숙자 흥남동장은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수칙을 지키며 노인일자리에 참여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 영등2동 '본가교통짬뽕' 행복한 나눔 실천**

영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본가 교통짬뽕'을 찾아 영등동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착한가게에 참여한 '본가 교통짬뽕'은 풍부한 해산물로 우려낸 교통짬뽕과 불향 가득한 유니제장이 일품인 가게로 남녀노소의 만족도가 높은 맛집으로 알려진 곳이다. 본가 교통짬뽕 서민재 대표는 “착한가게로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흥정옥 민간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착한가게에 동참하고 나눔에 앞장서 준 본가 교통짬뽕 서민재 대표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위기가정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뜻있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게 등을 통해 후원된 기부금은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전기안전 편의 시설 교체 지원사업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영등동 지역복지 특화사업에 사용된다. /익산=이재춘기자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성원김형록, 전북연합심선 전 정치부장) 모친상= 빈소 : 전주 뉴타운장례식장 301호(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60(서노송동), 발인 : 5일(금) 오전 8시, 연락처 : 010-9223-5833(김성원(형록)), 마음 전하실 곳 : 농협 3561334832673(김형범)

▲이은생전주일보 원주주재) 빙모상= 빈소 : 전주회사랑경제문화원 특5호(2층), 발인 : 5일(금), 연락처 : 010-9223-5888(이은생), 마음 전하실 곳 : 신협 13209400292(이은생)